



시로 읽는 성보순례  
파문  
국보 제36호 상원사동종  
통일신라시대 ▶2면

# 현대불교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법의 깊은 뜻을 사유하는 게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대반열반경 중권)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4월 10일) · 주간

대표단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880 호 2012년 5월 30일 수요일



불교계의 큰 별 한마음선원장 묘공당 대행 스님이 법랍 63세 세납 86세로 5월 22일 원적했다. 마음수행과 포교의 선구자를 이룩한 대행 스님은 그동안 쉽고 간결한 생활 법문을 통해 대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왔다. 스님은 원적에 들었지만 생활속 마음 공부를 강조해온 스님의 법문은 대중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다. 사진=박재관 기자

## ‘마음 공부법’ 혁신한 시대의 선지식

5월 22일, 한마음선원장 묘공당 대행 선사 원적  
법랍 63 · 세납 86세... 26일 비구니장 엄수

한국 비구니계의 원로 한마음선원 선원장 묘공당 대행 스님이 5월 22일 오전 0시경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3세, 세납 86세.  
대행 스님의 분향소는 안양 한마음선원에 마련됐으며 영결식과 다비식은 전국비구니회장으로 5월 26일 10시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엄수했다. (영결식 기사 추후 상보)

치약산 견성암에 머물며 증생구제의 원력을 실현하던 대행 스님은 강원도 월정사에서 탄허 스님을 계사로 1960년 사미니계를 1961년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50년대 말경부터 대행 스님은 치약산 상원사 근처에 있는 한 토굴에 머무르며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스런 호소를 듣고 그들을 도왔으며 1963년 상원사 중창불사를 도맡아 했다.

그러나 대행 스님은 내면의 무한한 능력인 근본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스스로를 아무런 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안타까움을 느낀다.

스님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그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스님의 원력은 1972년 경기

도 안양시 석수동에 한마음선원의 전신인 대한불교회관으로 발현된다. 이곳에서 10년을 포교한 대행 스님은 1982년 대한불교조계종 직할사암으로 등록하고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으로 개칭, 선원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30여년 넘게 한마음선원에 주석하며, 크고 작은 법회에서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근기

생활선 ‘한마음 관법’ 대중교화  
국내외 지원 25곳 자연발생  
“삶이 곧 불법...둘로 보지 말라”

와 여건에 맞추어 답을 해주며 불법의 진리를 가르쳤다.

스님은 찾아오는 이들에게 항상 “자기 자신의 부처가 될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 자신의 근본 마음을 철저히 믿고 그에 귀의하라”며 스스로의 불성(佛性)을 찾아야 한다고 설했다. 스님은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애를 주창했다. 이 관법은 관념으로 공리하는 이론이 아니었다. ‘삶이 곧 불법’이라는 말처럼 실생활에서 직접 체험하고 자성의 실체를 알

게 하는 마음의 법이었다.

또한 마음을 지켜보고 활용하는 관법을 통해 스스로를 내려놓을 것을 강조했다. 믿고 내려놓고, 되놓는 작업을 하다보면 더불어 이익되는 삶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대행 스님은 이를 공생 · 공심 · 공용 · 공식의 삶이라고 정의했고, 이 삶이야말로 진리 그대로의 삶이자 깨달음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즉 무주상 자비

해의불자 귀의 ‘관법’ 연구도  
범어 여러 나라서 번역 인기  
무주상 자비 실천 ‘공생’ 강조

실천인 ‘공생’을 강조한 것이다.

대행 스님을 설명하는 수식어는 ‘마음공부법’을 혁신한 시대의 선지식이라는 것이다. 국내외 총 25개 지원이 차례로 개원되면서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 세계속에 전파되고있다. 이들 지원들은 모두 본원의 계획이 아닌 각지의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발심해 건립된 것이다.

포교대중화에 앞장선 대행 스님은 국내 최초의 영탑공원 조성, 한글 뜻풀이 경전의 보급, 법문의 영상 포

교, 한국 불교 사상 최초의 인터넷 포교, 선법가를 통한 음성 포교, 현대불교 신문 창간, 한마음과학원 설립 등 실천적이고 현대적인 다양한 포교 방법들을 제시했다.

거사들을 위한 범형제 범회, 청년들을 위한 전국연합범회 등 당시에는 생소했던 계층 범회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스님은 불법의 흥포뿐만 아니라 교계 내의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널리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여러나라말로 번역된 대행 스님의 법문집은 전법의 발걸음을 세계로까지 넓혀 나갔다. 독일인 의사 한 스승 등 수많은 외국인 불자들이 스님에게 귀의해 관법연구에 힘썼다.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의 본성을 발현하게 하는 스님의 가르침은 <한마음요전> <허공을 걷는 길> <삶은 고가 아니다> <생활 속의 불법수행> 등 다수의 저서로 출간됐다. 또한 산하단체인 한마음국제문화원의 번역 작업을 거쳐 여러나라에서 현지 언어로 출간돼 인기를 끌었다.

대행 스님의 조세는 5월 28일, 49재는 7월 9일에 봉행된다.

신종일 · 이나은 기자

대행 선사 원적 지면 안내	
추모특집	3
대행 스님 분향소	
혜거 · 법산 스님이 본 대행 스님	
추모사설	23
대행 선사 추모 특집 8면	
스님의 발자취	1~2
각계 인사 영결사, 추도사	3
대행 스님의 주인공 관법	4
사진으로 보는 대행 스님	5
내가 만난 대행 스님	6
스님의 저서, 번역서	7
아! 대행 스승님	8

## “기득권, 권력 내려나라”

종단쇄신 요구... 사부대중 연대회의

승려 도박 문제에서 한국불교 승가 전체 문제로 번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쇄신인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정성 회복과 정법구원을 위한 사부대중 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만초, 이수덕, 성태용, 이하 사부대중 연대회의)는 5월 24일 만해 NG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사태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사부대중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종회 의원들은 권력화, 이익집단화한 계파를 해체해야 하며, 사부대중이 종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총무원과 본사 주지, 종단의 소임자, 종회 의원들은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종단은 범계행위 근절 위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진상 조사 대책위 구성해야 한다”며 “총무원, 본사주지, 종회의원, 주요 사찰 소임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종단 개혁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2010년 승적 반납 후 잠적했던 수경 스님은 ‘현 원장 용퇴’라는 강수를 던졌다. 수경 스님을 비롯한 연관(봉암사 선덕, 영진(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현진(전 봉암사 선원 임승), 원타(봉암사 주지), 함현(전 봉암사 주지), 철산(문경 대승사 선원장 및 주지), 월암(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해안(선원 주지), 성종(선원 주지) 스님 등 10명의 수좌들은 5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참회와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먼저, 종단의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해 누가 자성의 주체인지 반문한 수좌들은 “총무원장은 현상황의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즉각적으로 용퇴해야 한다”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임무와 책임을 순조롭게 넘겨주기 위한 수임기구를 설치해 종단을 정상화하고 명예롭게 퇴진하길 권고했다. 신종일 기자

수좌 모임 “원장 용퇴”  
계파 해산 한 목소리

## “총무원장 재임에 관심없다”

자승 스님 “임기 연연 안해”... 본사주지 참회 정진서 밝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재임에 관심없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자승 스님은 5월 25일 열린 ‘승가공동체 회복과 종단 안정을 위한 교구본사 주지 108참회 정진’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에 취임한 지 어느덧 2년 반이 지났고,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다. 임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재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임기에도 연연치 않는다”고 선언했다.

자성과 쇄신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스님은 “종단 책임자로 있는 동안 완성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재임을 통해 이루겠다는 것은 부질없는 욕심”이라며 “자성과 쇄신이라는 든든한 기반이 조성되고 여법한 승계를 생각하면 소임 기간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6월 초에 수많은 관심 속

에서 종단 쇄신안을 공포할 예정”이라며 “지금의 고통의 시공간을 미래에 위한 성장통으로 삼아 역사적 노고를 이뤄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108배 참회정진에는 참회 정진을 마친 뒤 교구본사주지협회의 회장 원행 스님은 “승승을 해치는 이들을 일방백계해 세간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공업중생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 해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08배 참회에서는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을 제외한 교구본사 주지 24명이 참석했다.

신종일 기자

신상품  
LED인등·전구  
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圓 妙空堂 大行禪師 全國比丘尼會葬 寂

## 訃告

妙空堂 大行禪師께서 佛紀 2556(2012)年 5月22日(陰 4月 2日)  
午前 0時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永訣式 - 日時 : 佛紀 2556(2012)年 5月 26日(陰 4月 6日) 午前 10時  
- 場所 : 한마음禪院 本院

■ 問 議 - 한마음禪院 本院 宗務所 031)470-3100, 3101  
※근조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妙空堂 大行禪師 全國比丘尼會葬 葬儀委員會